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전개 양상

김영민\* · 정욱주\*\*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 Development of Landscape Urbanism in Practice

Kim, Youngmin\* · Jeong, Wookju\*\*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University of Seo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Practice of Landscape Urbanism has been criticized on two aspects; Landscape Urbanism does not yet provide differentiated forms of planning and design neither able to fill th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In response to these criticisms, Landscape Urbanists have tried to provide additional cases that can exemplify achievements of Landscape Urbanism in practice. There has been another type of effort to suggest distinct planning and design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from theoretical texts. However, these approaches overlooked the fact that professional practice actually gave huge influence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Landscape Urbanism. Based on this observation, the study examined the development process of Landscape Urbanism by verifying the correlation between its practice and theory.

Through an extensive literature review, the study suggested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media, hybrid, site, and scale as eight major concepts of Landscape Urbanism. Afterwards, the study classified 51 projects cited in major essays and articles of Landscape Urbanism into four categories: Archetypal projects, precedent projects, exemplary projects, and progressive projects. The correlation between strategies of the selected projects and main theoretical concepts was analyzed. The study found out that the early stage of the theory was focused on defining and explaining the new design and planning approaches of contemporary design projects related with landscape. However, these days, Landscape Urbanism became a more productive in providing diverse types of practice sharing the direction and vision proposed by the theory. Various projects influenced in constructing theoretical structure of Landscape Urbanism as well as proved that the suggestions of Landscape Urbanism could be effective to reorganize contemporary cities in the form of design and planning strategies. The observation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provide proper answers to the criticism on practice of Landscape Urbanism and be helpful in understanding the limits and unrealized potentials of Landscape Urbanism as a practical theory.

*Key Words: Urban Landscape Design, Projects Typology, Practical Theory*

---

**Corresponding author:** Wookju Je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s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Tel.: +82-10-5701-4579, E-mail: [wookju@snu.ac.kr](mailto:wookju@snu.ac.kr)

## 국문초록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차별화된 설계나 계획의 형태적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며,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천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구자들은 실천적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거나, 이론적 개념을 토대로 구체적인 설계 전략들을 도출하려고 노력해왔다. 그러나 기존의 접근 방식들은 실천이 이론의 형성에 미친 영향을 간과해온 한계점을 보인다. 본 연구는 실천적 사례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 양상을 명확히 밝히고, 이론과 실천의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을 검토하여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스, 생태, 매체, 혼성, 부지, 스케일의 여덟 가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이론적 개념을 정리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토대로 주요 문헌에서 인용된 사례들 중 51개의 프로젝트를 성격과 시기에 따라 원형적 사례, 선행적 사례, 예시적 사례, 발전적 사례로 구분하고, 실천적 전략과 앞서 도출된 주요 개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초기에는 선구적인 프로젝트들로부터 이론적 내용과 개념들을 구성하던 해설적 이론의 성격이 강했지만, 이후 이론적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이론에 기반을 둔 실천적 사례가 등장하면서 생산적 이론으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원형적 사례, 선행적 사례, 예시적 사례, 발전적 사례들은 그 시기와 성격에 따라 특징적인 방식으로 이론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론적 개념을 새로운 전략을 통해 실천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에 대한 비판에 대해 대응할 실마리를 제시해 주고, 실천적 이론을 지향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도시 조경 설계, 실천적 사례 유형, 실천적 이론

## 1. 서론

### 1. 연구의 배경

기존의 조경이 급변하는 도시적 환경에 대응할 의미 있는 담론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던 1990년대 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모델을 제시하면서 등장하였다. 공식적으로 이론으로서 선언된 지 15년이 지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조경은 물론 건축과 도시 설계 분야에서도 새로운 대안으로서 주목을 받으며, 가장 중요한 현대 조경의 이론적, 실천적 담론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그동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두 가지 축을 따라 전개되었다. 한 축은 그동안 도시를 다루어왔던 기존 계획 이론에 대한 조경 중심의 비판적 이론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 못지않게 중요했던 또 다른 축은 건축 중심의 도시 설계 및 계획 방식을 대체할 실천적 측면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시작부터 실천적 이론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전면에 내세웠던 정체성의 핵심이었다<sup>1)</sup>.

하지만 그동안의 전개 양상을 살펴볼 때 비판적 이론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그 명성과 영향력에 있어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으나, 기존의 계획과 설계의 방법론을 대체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그 성과를 뚜렷하게 내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은 약점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

즘에 대한 비판적 견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왔던 부분이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은 두 가지 측면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하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차별화되는 설계나 계획의 형태적 대안을 아직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며 (Shane, 2006; Gray, 2007; Waldheim, 2009)<sup>2)</sup>, 다른 하나는 이론과 실천 사이에 괴리로 인해 실천적 사례가 명확하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으로 포섭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Gray, 2007; Drake, 2010; Kunstler, 2013)<sup>3)</sup>.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적으로 비판을 받아왔던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체성을 점검하고, 실천적 측면에서 그 한계와 가능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이론적 성과와 개념들을 토대로 지금까지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 각 시기별 특징적 성격과 성과들을 실제 프로젝트를 위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통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모호했던 이론과 실천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향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을 여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동향

실천적 측면의 비판에 대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크게

두 가지 흐름을 형성한다. 우선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은 새로운 사례들과 전략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실천적 양상을 설명하고자 한다(Weller, 2006; 2008; Waldheim, 2009; Corner, 2010; Reed, 2010)<sup>4)</sup>. 이와 같은 논의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틀은 완성되어 있으나, 이론의 실천적 성과를 예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계열의 프로젝트들이 지속적으로 제안되면 차별화된 형태적 대안이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에 대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른 한편,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들은 대부분 이론적 개념들에서 계획과 설계의 전략들을 도출하여 실천적 측면을 규명하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Kim *et al.*, 2006; Kang *et al.*, 2008; Lee and Yoo, 2010; Yoon, 2010; Kang and Choi, 2011; Kang 2013)<sup>5)</sup>. 이러한 연구들은 이론과 실천의 연관성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주며, 이후 제시되는 실천적 사례를 이론으로 포섭할 수 있는 확장적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측면을 규명하기 위한 두 가지 접근 방식은 공통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모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틀이 구성이 된 후 이를 토대로 실천이 성립했다는 전제를 가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제는 실천적 프로젝트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을 형성하는데 미친 영향력을 간과하게 만든다. 태생적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이론적 틀과 방침을 제시하여 새로운 실천을 촉구하려했던 모더니즘의 아테네 헌장(Athens Charter)이나 뉴 어바니즘 헌장(New Urbanism Charter)의 경우와는 달리, 이미 진행되고 있던 실천적 경향을 설명하기 위한 해설적(descriptive) 이론의 성격이 강하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1997년 동명의 전사회와 컨퍼런스를 통해 공식적인 이론으로서 선언된다. 셰인은 “경관이 도시 만들기의 도구로서 건축적 형태를 대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디자인의 작업을 설명하고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이 고안되었다고 보며(Shane, 2006: 64), 이론의 주창자인 왈드하임도 새로운 조경과 도시 설계 프로젝트들을 기술할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Waldheim, 2002).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우, 일부 실천적 사례들은 이론적 내용에 선행하며, 이론이 차별화된 실천을 야기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실천적 사례로부터 이론적 내용이 구성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연구는 실천적 사례들을 이론적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예시나 부산물로서 다루어왔을 뿐, 반대로 실천이 이론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이론적 내용으로부터 실천적 층위를 검증하려던

기존의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프로젝트들을 분석함으로써 실천과 이론의 관계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따라서 실천적 사례들을 중심으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의 상호성을 분석하고, 담론의 전개 양상 및 특징을 살펴보려는 본 연구의 시도는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 3. 연구 내용 및 방법

2장은 기존의 문헌과 연구를 검토하여 그동안 제시되어온 다양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의 내용과 구도를 살펴보고, 실천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출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접적으로 인용이 되는 특정 문헌들이 주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대부분의 문헌들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론적 구성의 특징에 주목하여 각 개념이 내용적으로 근거하고 있는 중심적인 문헌상의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개념들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이후 3장에서 실천적 사례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이 될 이론적 개념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젝트를 원형적 사례, 선형적 사례, 예시적 사례, 발전적 사례, 네 가지로 유형화한 후, 각 특징적 시기에 나타난 실천과 이론적 내용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지금까지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를 선정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많은 경우 연구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를 최소화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 살펴볼 실천적 사례들은 지금까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문헌들에서 직접 인용된 51개의 프로젝트로 국한하였다<sup>6)</sup>. 문헌에 제시된 프로젝트 중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 유의미한 전략을 분석할 수 없거나,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벳이나 후버뎀 프로젝트와 같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배경이나 지향점을 설명하기 위해 인용이 되었지만, 계획이나 설계를 이론의 실천적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연관성이 없는 프로젝트들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학교 스튜디오의 학생 작품이나 연구 결과물 역시 엄밀한 의미에서 계획 및 설계의 실무에 해당되는 사례가 아니므로 제외하였다. 2장에서 분석된 개념을 사례에 적용하는 과정에서도 주요 문헌에서 제시된 개념들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때문에 실제로는 해당 사례가 더 다양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반영할 수 있으나, 연구자의 초점에 따라서 사례와 개념의 상관성은 제한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앞의 분석에 근거하여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 양상을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

리하고 해석한다. 이를 토대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에 대한 비판적 견해의 맹점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지니는 한계와 가능성을 점검한다.

## II.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들

### 1. 주요 개념들의 이론적 구도와 문제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은 다양한 전시회와 컨퍼런스, 에세이들을 통해 광범위하게 제시되어 왔고, 국내외의 연구자들은 학술적 논문을 통하여 파편적인 개념들을 하나의 체계적인 틀로 종합하고 해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 중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직접적으로 제시된 경우는 코너가 발표한 주제들이 유일하다<sup>7)</sup>. 코너는 2003년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Mostafavi eds., 2004)에 실린 에세이 'Landscape Urbanism' (Corner, 2003)을 통해 수평성(Horizontality), 기반시설(Infrastructure), 프로세스의 형태(From of Process), 테크닉(Techniques), 생태(Ecology)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섯 가지 주제(Waldheim ed., 2006)를 발표한다. 그리고 2006년,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에 실린 'Terra Fluxus'에서 다시 한 번 시간에 따른 과정(Process over time), 표면의 각색(Staging over surfaces), 작동적 혹은 실행적 방법(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상상력(Imaginary)의 네 가지 주제를 제시한다(Corner, 2006). 코너의 개념들은 이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제공하였으며, 특히 국내외의 연구들은 대부분 코너의 개념들을 연구의 기본적인 틀로 삼고 있다(Kang and Choi, 2011: 226).

코너의 개념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연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경우, 구성원들의 집단적인 합의에 준거한 원칙이나 구체적인 실천 사항을 제안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론의 실질적인 주장자인 코너가 제시한 개념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논의들의 중심점이 될 확실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sup>8)</sup>. 둘째, 대부분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한 주제들이 선행적 사례의 분석의 결과이거나 태도나 지향점에 대한 비평적 기술이었던 반면, 코너의 경우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어들로 주제를 제시함으로써 사례나 해석에 의존하지 않는 개념적 실체를 구체화할 수 있었다. 셋째, 코너는 개념들을 실천적 주제로 정의하고 있다(Corner, 2003; 2006)<sup>9)</sup>. 이 때문에 이론과 실천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시할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실천적 이론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할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하지만 코너의 개념들이 실천적 주제를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성과를 명확히 규명하기도 못했으며, 그 동안 문제가 되어오던 이론과 실천 사이의 간격을 해소시키지도 못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이 분석해 볼 수 있다. 우선, 코너의 개념들은 다른 주제로 이루어져 있지만, 각 주제의 내용은 비슷한 지향점을 갖고 반복되고 있어 명확한 차별성을 지니지 못한다. 이와 같은 내용적 모호성으로 인해 개념들은 차별화된 실천적 전략으로 발전되기가 힘들다. 또한, 코너는 계획과 설계 프로젝트보다는 오히려 표현기법에 불과한 다이어그램이나 인용문헌을 통해 개념을 구체화시킨다. 따라서 코너의 개념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있지만, 개념의 실천적 적용 가능성을 명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코너의 개념들은 실천적 프로젝트의 계획이나 설계의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되지 못했다. 심지어 코너의 프로젝트들에서도 이 개념들이 직접적으로 사용된 예는 찾기가 힘든데, 이러한 점은 코너의 개념들이 실천적 측면에서 실효성을 뚜렷하게 지니지 못한다는 약점을 노출시켰으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천의 측면에서 자의적으로 해석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코너의 개념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명확한 실천의 원칙을 확립하는데 실패함에 따라 실천과 관련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추가적인 주제들과 해석들이 제시된다. 지난 20년간 생산된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논의들 가운데 강연주와 강효정의 연구는 이론적 층위뿐만 아니라, 실천적 적용까지를 고려하여 개념들을 도출하고 분석하고 있다(Kang *et al.*, 2008; Kang and Choi, 2011). 강연주는 조경설계 공모전을 통하여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에서 도시기반시설로 공원의 개념을 고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Waldheim ed., 2006),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Pae 2004), 『라지 파크』(Czeraniak eds., 2010)에 나타나는 주요 키워드를 분석한 뒤, 다시 네트워킹, 수평적 판, 인프라스트럭처, 과정, 부지, 스케일, 생태, 협업/혼성, 상상력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과 방향으로 정리하였다(Kang *et al.*, 2008). 강효정의 연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들을 이론적으로 정리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강효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라지 파크』 외에 추가적으로 『Coming from the South』(Bru, 2001),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Mostafavi eds., 2003)에 제시된 주요 개념들을 분석하여 융합,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생태, 프로세스, 매체 부지, 공공성, 스케일의 아홉 개의 개념들로 정리하였고, 이를 토대로 디자인 전략까지 도출하고자 하였다(Kang and Choi, 2011).

두 연구는 지금까지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복잡한 전개 구도와 층위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후의 관련 논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개념을 바탕으로 도출된 실천적 전략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시킨다. 첫째, 이론을 내용에서 실천적인 전략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을 피하기가 힘들다. 두 연구에서 같은 이론적 개념을 통해 도출된 실천적 전략들이 내용상 상이하게 나타나는 문제도 이와 같은 해석의 자의성에 기인한다. 둘째, 실천적 전략들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차별성을 흐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실천적 전략을 프로젝트에 적용했을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연구에서 도출된 전략들은 이론적 내용을 뒷받침하고, 기존의 프로젝트들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성격을 분석하는 도구로서는 유용할지 모르나, 실제로 이를 실무에서 차별화된 전략으로 적용하기에는 구체적이지 못하다.

## 2. 주요 개념들의 상호연관성

앞서 살펴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들은 동일한 이론적 내용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 그러나 연구자의 해석과 의도에 따라 새로운 개념이 추가되기도 하며, 구체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 우선 코너가 두 번에 걸쳐 제시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2006년에 발표된 주제들은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 발전된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전에 제시된 주제들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시간에 따른 과정은 내용상 이전의 주제 중 프로세스의 형태와 생태학과 일치하는데, 주요한 주장은 물론 인공문헌까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sup>10)</sup>. 마찬가지로 표면의 각색은 수평성과 인프라스트럭처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으며, 작동적, 실천적 방법은 테크닉에 해당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연설명과 예시가 더 첨가되기는 했지만, 상상력의 주제를 제외하고는 두 에세이가 제시하는 주제들은 형식적인 구성이 다를 뿐 근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장과 지향을 직접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코너의 개념과는 달리 국내의 연구를 통해 정리된 개념들은 기존의 문헌과 사례를 분석한 결과물로서 명확한 이론적 출처나 근거를 갖는다. 이 중에서 중심적인 틀을 구성하는 것은 역시 코너가 2003년에 제시한 다섯 가지 개념이다. 두 국내의 연구에서 직접적으로 반복되는 코너의 개념은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스, 생태이다. 연구자에 따라 개념의 명칭을 달리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의 해석에서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 개념들은 모두 내용상으로는 코너가 제시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강연주의 주제어 매트릭스를 살펴보면 코너는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연구자가 코너의 에세이가 실린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를 직접적으로 인용하지 않은데 따른 결과이다(Kang *et al.*, 2008: 45). 하지만 연구의 또다른 개념적 근거를 제시하는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이 제시하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주제들이 코너의 'Landscape Urbanism'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은 실제로 코너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Pae, 2004: 167).

강연주의 연구에 제시된 네트워킹은 다른 연구와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개념이다. 연구자는 이 개념의 주요한 이론적 근거를 리드와 새넌(Kelly Shannon)의 에세이에서 찾고 있으나, 리드는 주로 인터넷의 전신인 알파넷(ARPANET)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의 개념을 언급하며(Reed, 2006: 307), 새넌의 경우 네트워크를 중심적인 개념으로 다루고 있지 않아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오히려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코너의 표면의 각색에서 나타난다(Corner, 2006: 34-35). 또한 네트워킹에 대한 기술도 코너의 수평적 표면을 구체화하기 위해 사용한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과 내용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네트워킹은 표면의 각색이나 수평성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두 국내 연구에서 제시되는 협업 또는 혼성, 그리고 융합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는 코너가 제시한 테크닉의 개념과 관련된다. 코너는 테크닉에서 탈영역적 협업과 새로운 매체의 개발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말하고 있다(Corner, 2003: 62). 강연주의 경우, 테크닉에서 언급되는 협업과 매체에 대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협업 또는 혼성이라는 개념으로 함께 다루며, 강효정은 이를 융합과 매체의 두 가지 개념으로 분리하여 다룬다. 이 때 강효정이 융합과 매체의 개념을 해설하면서 더 직접적으로 참고하는 이론적 문헌은 왈드하임의 에세이이다(Waldheim, 2006). 코너가 말하는 매체는 추상적인 다른 주제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들을 계획이나 설계의 실무에서 다룰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론이나 도구가 가깝다. 코너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인용하는 월터 크리스탈러(Walter Christaller), 루드비히 힐버자이머(Ludwig Hilberseimer), 루이스 칸(Louis Kahn)의 다이어그램이 코너가 제시하는 매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반면, 왈드하임은 개념적인 의미에서 도시를 다루는 모델을 제시할 경관의 매체적 특성을 이야기한다. 왈드하임이 사용하는 매체의 개념은 이론적 방향이나 태도를 규정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다양한 함의를 지니고 있어,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특정한 전략과 결부시키기가 힘들다.

상상력은 코너가 2006년에 새로이 제시한 주제이다. 상상력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보다는 합리적 사고의 한계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본적인 태도나 윤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상상력은 국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너가 추가한 상상력은 2003년의 다섯 주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가치를 중점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문화적 맥락이나 인문적인 측면을 소극적으로 다루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Thomson, 2011; Talen, 2013; Kunstler, 2013), 이에 대한 대응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은 대상지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추가적인 개념과 사례들을 제시해왔다. 코너의 상상력은 이러한 논의를 포괄하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코너는 상상력에서 공공 공간, 집합적 기억, 장소, 상징성 등 장소성과 관련된 가치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는데(Corner, 2006: 36), 이는 부지와 공공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sup>11)</sup>. 강연주와 강효정이 공통적으로 제시한 부지는 많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문헌에서 다루어지며, 특히 처니악(Julia Czerniak)은 대상지를 중심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기술하고 있다(Czerniak, 2006). 강효정이 제시한 공공성의 경우 대규모의 공원 및 도시 공간을 주로 다루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특성상 중요한 가치임에는 분명하나, 전통적인 조경에서도 항상 강조해온 공공성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차별화된 지향점이나 개념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스케일은 코너가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개념이다. 스케일은 폴락(Linda Pollak)이 중심적으로 다루었으며(Pollak, 2006), 다양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논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스케일은 국내 연구의 중요한 이론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라지 파크」의 전반적인 논의를 관통하고 있는 개념이기도 하다. 코너 역시 정립된 개념으로서 스케일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에세이를 통해 광역적인 범위부터 인간이 직접 대하는 작은 영역까지 포괄하는 스케일의 중첩과 변주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차별화된 실천적 개념으로 제시한다(Corner, 2011). 국내의 두 연구에서 스케일의 개념적 내용은 동일하며, 코너의 스케일에 대한 해석과도 대부분 일치한다.

서로 다른 연구자가 제시한 개념들의 상호연관성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상당수의 개념은 서로 일치하며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개념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개념들 간의 관계는 Table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주요 개념의 특성과 상호연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수평성, 인프라스트럭처, 프로세스, 생태,

매체, 혼성, 부지, 스케일이 본 연구의 실천적 사례 분석을 위한 기준이 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으로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 III.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와 전략

본 장에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전략들과 앞 장에서 도출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개념들과의 연관성을 살펴봄으로써 실천적 측면에서 살펴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전개 양상을 각 시기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각 실천적 사례들이 전체적인 이론적 구도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 프로젝트들을 시기와 역할에 따라서 원형적 사례, 선형적 사례, 예시적 사례, 발전적 사례의 유형으로 구분하여 선정하고 분석하였다.

#### 1. 원형적 사례(Archetypal projects)

원형적 사례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 형성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지향점과 개념들의 단초를 제시해 주는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시기적으로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주었다고 평가받는 라 빌레뜨 공원(Parc de la Villette) 공모전이 개최된 1983년 이전에 제안된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sup>12)</sup>.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이론적 틀이 형성이 된 후 그 기원을 탐색하면서 검토된 원형적 사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유사한 접근 방식을 보여주지만, 기본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지양하는 고전적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의 형성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힘들며, 사례들의 전략에서 볼 수 있는 주요 개념과의 상호연관성은 소급적으로 밝혀진 유사점들이라고 보아야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원형적 사례들은 20세기의 조경사와 건축사의 흐름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갖는 차별화된 의미의 기원을 밝혀주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형적 사례들과 전략, 그리고 연관된 랜드스케이

Table 1. Interrelationship among concepts of Landscape Urbanism

Author	Concepts								
James Corner(2003)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Form of process	Ecology	Techniques		NA	
James Corner(2006)	Staging over surfaces			Process over time		Operational or working methods		Imaginary	NA
Y. Kang, J. Kim, J. Pae(2008)	Horizontal surface	Networking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Collaboration/hybridity		Imaginary	Site
H. Kang, J. Choi(2011)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Media	Coalescence(hybridity)	Publicness	Site
								Scale	Scale

Table 2. Archetypal projects

Project	Designer	Reference	Strategy	Related concepts
Central Park(1857)	Frederick L. Olmsted	Mossop(2007) Waldheim(2006)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Infrastructure
Back Bay Fens/ Emerald Necklace(1882)	Frederick L. Olmsted	Corner(2006) Mossop(2006) Tatom(2006) Waldheim(2006)	· Infrastructural landscape · Ecological function · Respecting site conditions · Traversing diverse scales	Infrastructure, ecology, site, scale
Henry Hudson Parkway(1937)	Robert Moses	Tatom(2006)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Urban connection · New urban experience	Infrastructure, site, scale
Broadacre City(1938)	Frank L. Wright		· Horizontal structure · Protection of ecological landscape · various scales of urban elements · Hybrid of programs	Horizontality, ecology, hybridity, scale
The New Regional Pattern(1949)	Ludwig Hilberseimer	Waldheim(2007)	· Horizontal structure · Infrastructural landscape · Hybrid programs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hybridity
Lafayette Park(1956)	Ludwig Hilberseimer/ Mies van der Rohe		· Urban connection · Hybrid of programs	Hybridity, scale
Leca de Palmeira Pool(1961)	Alvaro Siza	Pollak(2006)	· Various scales of landscape regeneration · Respecting site conditions	Site, scale
Gas Works Park(1975)	Richard Haag	Russel(2001) Waldheim(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Site

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은 Table 2에서 제시하였다.

원형적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용되는 사례는 보스턴의 에메랄드 네클레스(Emerald Necklace)와 백 베이 펜스(Back Bay Fens, 이하 펜스라고 한다)이다.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우수와 하수를 처리하고, 강의 역조 현상을 관리하는 펜스의 도시 기반시설적 기능에 주목한다. 이 외에도 공원의 구조가 습지대였던 대상지의 조건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점과 지역적 체계를 연결하면서 도시 내에 다양한 장소를 만들어낸다는 점이 강조되는데, 코너는 이러한 펜스의 특징을 “스케일을 전이할 수 있는 능력”을 구체화하는 예라고 평가하고 있다(Corner, 2006: 26). 그러나 왈드하임은 펜스가 경관과 도시기반시설을 통합한 예임에는 틀림없지만 “자연의 목가적인 이미지 속으로 생태적 체계를 은폐하려는” 전통적인 태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한다(Waldheim, 2006: 42).

왈드하임이 북미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선례로서 제시하는 브로드에이커 시티(Broadacre City)나 힐버자이머(Hilberseimer)의 작업들은 현대 건축사적 맥락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원형을 발견하려는 독특한 시도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건축적 사례들은 건축, 도시, 조경의 영역적 재편과 혼성을 추구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역사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왈드하임은 이들 사례가 건물이나 블록을 기본 단위로 삼은 기존의 모더니즘 도시 설계의 방식과는 반대로 경관적 체계가 중심이 되는 수평적 도시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수평성의 개념과 연관 짓는다(Waldheim, 2007). 또한 다양한 스케일의 경관과 건축 구조, 도시기반시설이 혼성적으로 배치되는 전략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사고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다(Waldheim, 2007).

## 2. 선행적 사례(Precedent projects)

선행적 사례는 라 빌레프 공원 공모전이 열린 1983년 이후부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으로서 공식적으로 선언된 1997년 이전의 프로젝트들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선행적 사례들의 내용은 Table 3과 같다. 선행적 사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개념으로 정립되기 이전에 제안되거나 완성되었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라는 이론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문헌들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개념들과 이론적, 실천적 구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프로젝트들에서 보여지는 새로운 도시 공간에 대한 사고와 전략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방향뿐 아니라, 주요한 이론적 개념들을 형성하는데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선행적 사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새로운 실천의 경향과 접근 방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해설적 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된다.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의 라 빌레뜨 공원 당선안과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이등 안은 담론의 형성 과정을 기술하고 있는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사고의 가능성을 최초로 보여준 사례로서 예시되고 있다(Corner, 1997; 2001; Shane, 2006; Waldheim, 2002; 2006; Weller, 2006). 라 빌레뜨에서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핵심적인 개념은 프로세스이다. 왈드하임은 츠미의 “프로그램과 이벤트의 재구성”과 쿨하스의 “프로그램 사이에 발생하는 계획되지 않은 관계의 병치”의 전략을 통해 기존의 형태적 구성에서 벗어나 비결정적이며 개방적인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가 구현되었다고 보며, 이 두 사례는 “시간에 따른 모든 종류의 도시적 형태를 수용할 기반시설의 수평적 장을 구성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초기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한다(Waldheim, 2006: 44-45). 수평성, 기반시설, 매체, 생태, 스케일의 개념들도 나타나지만, 아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구체적인 주장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문헌들이 당선안보다 오히려 이등 안을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이다. 이는 안 자체의 우수성보다는 쿨하스가 전제적인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구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인한다. 해체주의를 대표하는 츠미의 초점이 건축적 외연의 확장에 맞춰져 있었던 반면, 경관을 중요한 매체로 인식하는 쿨하스의 접근 방식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뿐만 아니라,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웰러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내에서의 쿨하스가 갖는 위상에 대해 “대부분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문헌들은 이론적 원형이 된 쿨하스적인 흐름에 열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Weller, 2008: 66). 실제로 쿨하스의 경우, 실천적 사례뿐만 아니라 이론적 작업들도 주요 문헌에서 빈번하게 인용됨을 발견할 수 있으며(Corner, 2006; Czerniak, 2006; Mossop, 2006; Reed, 2006; Shane, 2006; Shannon, 2006; Waldheim, 2002; 2006; Weller, 2006; 2008), 이론과 연계된 그의 다른 프로젝트들은 역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적 사고를 보여주는 중요한 실천적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프로세스는 라빌레뜨 뿐만 아니라 다른 선행적 사례들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심적인 개념으로 나타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들은 이전 적지, 매립지, 오염지와 같은 도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난 브라운 필드(brown field)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대상지를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오염정화나 지반 안정화와 같은 기술적인 문제에서부터 예측이 불확실한 도시적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대규모 계획까지 다양한 스케일의 프로세스 중심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계획가, 건축가, 조경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요청이 있기 전부터 이러한 부지를 다루기 위해 프로세스를 고려한 대안

을 제시해야 했으며, 그 실천적 전략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지향점을 제시해 주었다. 엄밀히 말하자면 브라운 필드 재생 프로젝트는 19세기부터 존재해왔다<sup>13)</sup>. 그러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하는 프로세스 중심의 접근 방식을 통해 이러한 부지를 다룬 최초의 사례는 뒤스버그 노드(Duisburg Nord) 공원이다(Shannon, 2006; Waldheim, 2006). 뒤스버그 노드에서는 개발 및 운영 방식, 도시와의 연결 등의 계획적 요소에서부터 식재나 프로그래밍과 같은 설계의 방식까지 시간에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복합적인 전략들이 제시되는데, 이후에 등장한 도무스 아카데미(Domus Academy), 유니메탈 공원(Unimetal Park), 브리켓팩토리 위츠니츠(Brikettfabrik Witznitz)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대상지를 다루고 있다(Shannon, 2006). 이러한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젝트는 이전 적지를 대상으로 했지만 그 흔적을 남기지 않은 라빌레뜨 공원과 비교할 때 기존의 구조와 맥락을 존중했다는 점에서 장소성에 대한 부지의 개념과도 연관된다. 치니악은 부지 혹은 장소의 개념을 독립적인 주제로 삼아 하그리브스의 빅스비 공원, 구아달루페 공원, 플라자 공원의 사례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Czerniak, 2006), 새년 역시 이 개념을 유럽의 사례를 통하여 케니스 프랩톤의 경관의 개념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중요하게 다루었다(Shannon, 2006).

프로세스와 함께 선행적 사례들에서 중요하게 서술되는 주제는 인프라스트럭처이다. 경관을 도시 내의 부분적 요소로 간주하지 않고 도시의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는 기반시설로 인식하는 태도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중요한 지향점이자 실질적 전략이다. 고속도로 시설과 공원을 결합시킨 트리니타트 공원(Trinitat Park), 글로레스 카탈루냐 광장(Placa del Glories Catalanes), 몰 데 푸스타(Moll de la Fusta) 등 1990년대 바로셀로나의 프로젝트들은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례들이다(Mossop, 2006; Pollak, 2006; Shannon, 2006; Tatom, 2006; Waldheim, 2006). 왈드하임은 트리니타트 공원을 인용하면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핵심적인 전략은 교통 기반시설을 공공공간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Waldheim, 2006), 모슈, 타툼, 베랑저(Pierre Berranger)의 경우 도시기반시설과 조경의 연관성을 독립된 주제로 다루었을 만큼 인프라스트럭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Mossop, 2006; Tatom, 2006). 두 이질적인 공간과 기능의 결합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고속도로 공문화 프로젝트와는 달리, 공원의 구조 자체가 기반시설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례도 인프라스트럭처의 개념과 연관된다. 렉스톡 파크(Rebstock Park)의 우수처리 시스템, 구아달루페 수변 공원(Guadalupe River Park)의 홍수조절 기능들은 옴스테드의 펜웨이 파크를 원형으로 삼은 수문학적 기반시설로서의 공원의 역할을 보여준다(Czerniak, 2006).

Table 3. Precedent projects

Project	Designer	Reference	Strategy	Related concepts
Parc de la Villette(1983)	Bernard Tschumi	Corner(2001) Waldheim(2002, 2006) Shane(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 Reorganization of urban transformation · Rearrangement of program and events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media, scale
Parc de la Villette(1983)	OMA	Corner(1999) Waldheim(2002, 2006) Shane(2006) Weller(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 Process oriented design · Juxtaposition of unplanned programs · Supporting constant changes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media, scale
Melun Senart(1987)	OMA	Shane(2006) Shannon(2006)	· Void structure · Landscape providing urban framework	Process, media
Moll de la Fusta(1987)	Manuel de Sola-Morales	Mossop(2006) Tatom(2006)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Hybrid of multiple functions · Urban connection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hybridity
Plaza Park(1989)	George Hargreaves	Czerniak(2006)	· Resp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Scale
Duisburg Nord Park(1991)	Peter Latz	Waldheim(2006) Shannon(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 Ecological restoration · Regional scale integration	Ecology, site, scale
Rebstock Park(1991)	Peter Eisenman, Laurie Olin	Corner(2006) Czerniak(2006)	· Surface continuity(folding)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Process oriented design · Ecological approach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site, scale
Byxbee Park(1991)	George Hargreaves	Czerniak(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 Resp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Process, site
Trinitat Cloverleaf Park(1992)	Enric Battle, Joan Roig	Waldheim(2006) Shannon(2006) Mossop(2006)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Urban connection · Hybrid programs	Infrastructure, hybridity, scale
Kunsthal(1992)	OMA		· Surface continuity(folding) · Urban connection	Horizontality, scale
Placa del Glories Catalanes(1992)	Andrew Ariola	Pollak(2006)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Urban connection · Hybrid programs	Infrastructure, hybridity, scale
East Scheldt Shell Project(1992)	West 8	Waldheim(2006) Pollak(2006) Donnelly(2013)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Ecological approach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site
Guadalupe River Park(1994)	George Hargreaves	Czerniak(2006) Mossop(2006) Donnelly(2013)	·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 · Respecting site conditions · Ecological approach	Infrastructure, ecology, site
Domus Academny(1994)	Andrea Branzi		· Flexible architecture · Structure supporting constant changes	Process
Unimetal Park(1995)	Dominique Perrault	Shannon(2006)	· Brownfield regeneration · Process oriented design · Structure supporting constant changes	Process, ecology, site
Brikettfabrik Witznitz(1996)	Florian Beigel			
West Market Square(1995)	West 8	Shane(2006)	· Void structure	Horizontality, process
Schiphol Airport(1996)	West 8		· Planting supporting constant changes	Process, ecology
Borneo Sporenburg(1996)	West 8	Waldheim(2006)	· Landscape providing urban framework · Various scales of outdoor spaces ·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Hybridity, scale, media
Yokohama Terminal(1996)	FOA	Shane(2006)	· Surface continuity(folding) · Structure supporting constant changes · Regional scale integration	Horizontality, process, site
Kansai Libray(1996)	RUR	Drexler/Duisburg(2003)	· Surface continuity(folding)	Horizontality

선행적 사례들에서 드러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수평성이다. 코너는 표면의 연속성을 설명하면서 렉스톡 파크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Corner, 2006: 34). 이 때 코너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전략은 현대 건축에서 나타나는 폴딩(folding)이다. 폴딩은 건축의 기본 단위를 분절적인 요소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변형되는 무한한 면으로 보고 접근하는 기법으로서(Bong, 2005), 렉스톡 파크를 비롯하여 다른 문헌에서 인용된 간사이 도서관(Kansai Library), 쿤스탈(Kunsthal), 요코하마 터미널(Yokohama Terminal)이 폴딩 건축의 사례에 해당된다(Drexler and Duisburg, 2003; Pollak, 2006; Shane, 2006). 계획과 설계는 물론 정책이나 행정의 영역에서도 탈위계적인 체계를 지향하며, 도시 표면을 하나의 장으로서 다루려는 수평성의 개념이 포섭하려는 내용은 분명 폴딩 건축이 보여주는 평면 조작의 기법보다 포괄적이다. 그러나 폴딩 건축을 제외한 다른 사례에서 제시되는 수평성의 개념은 구체적인 전략에 해당한다기보다는 개념적인 지향점이나 태도에 그치고 있다. 폴딩 건축의 사례들은 수평성의 개념이 실제 물리적인 건축과 조경의 공간을 통합할 수 있는 실천적 설계의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시함으로써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또 다른 개념인 혼성을 설명해 주기도 한다. 웨인은 폴딩 건축을 영역적 혼성은 물론 건축과 도시의 공간적, 프로그램적 혼성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중요하게 다룬다(Shane, 2006: 74).

### 3. 예시적 사례(Exemplary projects)

예시적 사례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선언된 1997년 이후에 나타난 프로젝트이면서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이 출간된 2006년 이전의 주요 문헌들에 나타나는 프로젝트들을 포함한다. 2006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과 개념들이 실질적으로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평가받기 때문이다. 1997년에서 2006년까지의 10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이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이론과 실천으로서 구축되는 시기라고 볼 수 있으며, 중요 문헌에서 인용되는 프로젝트들 중 이 시기에 등장한 사례들은 이론이 형성되기 이전에 나타난 선행적 사례들과는 다른 위상을 갖는다. 하지만 이론이 선언된 뒤 나타났다는 시기적인 특징 때문에 모든 예시적 사례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성향을 고려할 때 코너의 프로젝트들을 제외한 다른 예시적 사례들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중요한 예시적 사례들은 Table 4에서 정리하였다.

주요 문헌에서 인용되는 사례 중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등장한 이후 10년 동안 제시된 프로젝트의 수가 적으며, 그마

저도 대부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모호하다는 사실은 이 시기 동안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성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을 반영한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생산한 형태는 아직 충분히 성취되지 못했다”는 마차도의 비판이나 “기존의 도시나 지역 계획의 접근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디자인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디자인적 잠재력은 아직 프로젝트를 통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레이의 비판은 이와 같은 약점을 겨냥하고 있다(Gray, 2006: 94; Waldheim, 2009: 235). 그러나 이론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불분명하다고 그 수가 적다고 하여 예시적 사례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형성 과정에서 갖는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다. 일부 개념들을 파편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쳤던 선행적 사례들과 비교해볼 때 예시적 사례의 경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양한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며, 이전에는 강조되지 않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들이 전면에서 등장한다.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 공모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을 이끌던 코너가 실천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이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 유희나 기존의 사례의 분석적 틀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처음으로 보여준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왈드하임은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를 “다원화되고 잠재적으로 상충하는 맥락을 조율하고 집적하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원숙한 작업에 대한 좋은 예”라고 평가한다(Waldheim, 2006: 54). 프로세스는 이 경우에서도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개념이다(Russel, 2001; Mertins, 2003). 하지만 프로세스 이외에도 이전의 사례에서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던 개념들이 두 프로젝트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생태는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를 통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중심적인 개념으로 제시된다. 이전 프로젝트에서 생태는 공간을 임시로 점유하거나 공학적 장치들을 포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식재계획 정도에 그치고 있었던 반면,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의 생태는 전체적인 공간의 구조를 구성하며, 프로세스 중심의 사고를 구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코너와 추미가 제시한 다운스뷰 파크 계획안에서 생태학적 지식에 기초한 식생천이 과정은 프로세스의 모델을 통해 도시와 자연을 융합할 핵심적인 전략을 제시한다. 코너의 프레쉬킬스 당선안이 지닌 차별성 역시 역동적인 생태 체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공원을 제안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들 프로젝트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새로운 실천적 개념은 매체이다. 이전의 사례들에서 매체는 비유에 가까운 추상적 개념이었을 뿐 구체적인 설계 전략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그러나 다운스뷰의 당선안인 트리 시티(Tree City)는 프로세스를 설계와 계획의 전략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이미지와 다이어그램을 새로운 매체를 제시하고 있으며, 프레쉬킬스의

Table 4. Exemplary projects

Project	Designer	Reference	Strategy	Related Concepts
Gallego River Waterfront(1999)	Inaki Alday, Magarita Biboum, Pila Sancho	Shannon(2006)	· Infrastructural landscape · Ecological restoration	Infrastructure, ecology
Lyon Confluence(2001)	Francois Grether, Michel Desvigne		· Adaptable reuse of abandoned space · Structure supporting constant changes · Process oriented design	Process, ecology, site, scale
Downsview Park-Tree City(2000)	OMA	Russel(2001) Mertins(2003) Mossop(2006) Shane(2006) Waldheim(2006) Yang(2013)	· Brownfield regeneration · Process oriented design · Infrastructural landscape · Ecological restoration · New representation techniques · Integration of city and nature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media, hybridity, site, scale
Downsview Park-The Digital and the Coyote(2000)	Bernard Tschumi			
Downsview Park-Emergent Ecologies (2000)	JCFO			
Fresh Kills-Lifescape(2001)	JCFO	Corner(2003) Mertins(2003) Mossop(2006) Shane(2006) Waldheim(2006) Donnelly(2013)	· Brownfield regeneration · Process oriented design · Infrastructural landscape · Ecological restoration · New representation techniques ·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media, hybridity, site, scale

당선안 라이프스케이프(Lifescape) 역시 새로운 형식의 다이어그램들을 통해 개념적으로 모호한 다원성과 변화의 공간을 설계와 계획의 방식으로 구현한다. 이 두 안이 보여준 다이어그램들은 코너가 제시한 실천적 수단으로서의 매체의 예를 잘 보여준다. 혼성의 개념도 이 두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이전의 사례들에서 혼성은 주로 이질적인 프로그램과 기능들을 결합하는 공간적인 방식으로 나타났다.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에서 이와 같은 공간적인 혼성 외에도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지향하는 영역적 혼성이 전문가 집단의 협업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다(Waldheim, 2006: 57). 이외에도 이들 프로젝트에서는 그동안 사례들을 통해서 파편적으로만 나타나던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서로 연계되며 종합적인 전략으로 구현되고 있다. 이로써 이론적으로는 많은 부분을 공유하지만 실천에서는 뚜렷한 연관성이 보이지 않았던 개념들이 다운스뷰와 프레쉬킬스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프로젝트를 구현하게 되는 실천적 전략으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 4. 발전적 사례(Progressive projects)

발전적 사례는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가 출간된 2006년 이후의 문헌들에서 제시된 프로젝트들을 말한다. 2006년을 기점으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다룬 다양한 연구와 저술들이 나타나며, 출판된 문헌의 양과 비례하여 제시되는 실천적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전에는 대부분의 문헌들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있었다면, 2006년부터는 기존의 이론적 내용을 근거로 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양한 해석이나 비판

적 견해들이 등장하는 등 전체적인 담론의 내용이 다양화되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현상은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구도에서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가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2006년 이후에 제시되는 실천적 사례들 역시 이전의 선행적 사례나 예시적 사례들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발전적 사례들의 내용과 주요 개념들은 Table 5에서 정리하였다.

첫째, 발전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표방하는 작가들의 실천적 성과가 두드러진다. 이전의 사례들은 코너의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이 드러나는 사례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실천적 사례가 이론의 내용의 영향을 미친 사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을 전면에 내세우는 크리스 리드의 Stoss나 에바 카스트로(Eva Castro)가 이끄는 Ground Lab과 같은 사무실의 작업은 이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과 지향점이 실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이 외부에서 형성된 사례들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중심이 되던 해설적 이론에서 이론적 내용과 틀을 수용한 실천을 내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생산적 이론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발전적 사례들은 그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발전적 사례들은 과거의 사례들에 비해 다양한 유형과 범위의 스케일을 다룬다. 프로젝트의 유형과 관련하여 발전적 사례가 보여주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도시계획과 설계 프로젝트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전통적인 조경의 접근 방식과 구별하여, 기존의 조경은 도시의 부분적 공간으로서 공원과 정원이라는 요소를 다루는 반면, 랜즈

Table 5. Progressive projects

Project	Designer	Reference	Strategy	Related concepts
Knowledge Corridor(2005~2013)	JCFO	Corner(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Process oriented planning</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Flexible structure</li> <li>• Hybrid programs</li> <li>•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hybridity, scale
Asian Culture Complex(2005~2013)	Kyu Sung Woo Architecture./MVVA	Kang(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rface continuity</li> <li>•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li> <li>• Reorganizing spacial memories</li> <li>• Multi-scale layering</li> </ul>	Horizontality, hybridity, site, scal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on City-Happy City(2007~2013)	Haeahn Architecture/Balmori Associ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rface continuity</li> <li>•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li> <li>• Urban street penetration</li> <li>• Program oriented planning</li> <li>• Hybrid programs</li> <li>• Multi-scale layering</li> <li>•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hybridity, site, scale
Lower Don Lands(2007~2013)	MVVA	Donnelly(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Process oriented development</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Ecological restoration</li> <li>• Hybrid programs</li> <li>• Urban connection</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hybridity, sit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on City-Open Space(2007)	Haein Landscape Architecture	Zoh(2010) Pae(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urface continuity</li> <li>• New urban structure</li> <li>• Hybrid programs</li> <li>• Process oriented development</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Preserving agricultural landscape</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hybridity, site, scale
Deep Ground, Longgang Masterplan(2008)	Groundlab	Waldheim(2010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New urban structure</li> <li>• Hybrid programs</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hybridity
High Line Section 1(2009)	JCFO	Drake(2010) 윤희연(2010) Donnelly(2013) Morenas(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Urban connection</li> <li>• Process oriented development</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ecology, hybridity, site, scale
Providence Pedestrian Bridge(2010)	FORM	Donnelly(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ntegration of infrastructure and landscape</li> <li>• Urban connection through topography</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Kwangju Greenway(2010)	Sungjin Engineering	Kang(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Event space</li> </ul>	Process, site
London 2012 Olympic Legacy Master Plan(2010~2012)	AECOM	Smith(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Process oriented development</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li>• New urban structure</li> </ul>	Horizontality, infrastructure, process, site, scale
Bass River Park(2010)	Stoss	Reed(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lexible structure</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ul>	Infrastructure, process
Erie Street Plaza(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rocess oriented planning</li> <li>• Ecological approach</li> </ul>	Process, ecology
Herinnerings Park(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ybrid form</li> <li>• Hybrid programs</li> <li>• Infrastructural landscape</li> </ul>	Infrastructure, process, hybridity
The City Deck(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ban connection</li> <li>• Surface continuity</li> </ul>	Horizontality
Santa Monica Civic Center Park(2011)	JCFO	Donnelly(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ban connection</li> <li>• Surface continuity</li> </ul>	Horizontality
Brooklyn Bridge Park(2012)	MVVA	Drake(2010) Donnelly(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rownfield regeneration</li> <li>• Process oriented planning</li> <li>• Ecological restoration</li> <li>• Regional scale integration</li> </ul>	Process, ecology, site, scale

케이프 어바니즘은 경관을 매체로 도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복합적으로 다룬다고 주장해 왔다(Waldheim, 2002; Waldheim, 2006; Corner, 2010). 그러나 지금까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실천의 유형은 대부분 도시의 부분에 국한된 공원으로 스스로가 주장하는 도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별성을 명확히 보여주지 못했다. 이에 대해 웰러는 “우리는 왜 랜스케이프 어바니스트들이 그렇게도 어바니즘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도시를 다루지는 않는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한다(Weller, 2008: 67). 2006년 이후의 문헌들에서는 지식 코리더(Knowledge Corridor), 룡강 마스터플랜(Longgang Masterplan), 로워 던 랜드(Lower Don Lands) 그리고 2012 런던 올림픽 마스터플랜(London 2012 Olympic Legacy Master Plan)과 같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다루는 도시계획 및 설계 프로젝트가 제시된다.

또한 발전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건축적 프로젝트들도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의 문헌들에서는 수평성을 설명하기 위해 폴딩 기법을 사용한 건축적 사례가 주로 제시된 반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나 중심행정타운과 같은 프로젝트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건축물이 경관을 중요한 매체로 활용하고 있으며, 건축과 조경의 경계가 모호할 정도로 통합된 공간을 구현한다. 하이라인(High Line), 광주 푸른길이나 프로비던스 보행다리(Providence Pedestrian Bridge)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프로젝트의 등장도 주목할만한 점이다. 이와 같은 선형의 부지를 활용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은 주로 면적인 산업단지나 매립지가 중심을 이루던 과거의 도시 재생 사례들과는 다른 접근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의 공간을 새롭게 재구성하는데 있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접근 방식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이 실천적인 전략들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발전적 사례들은 특정한 지역적 상황을 토대로 성립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과 실천이 다른 지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유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계획과 설계의 실천적 움직임에 대한 해석으로 나타나기는 했지만, 여러 이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핵심적인 이론적 배경과 근거는 북미의 도시 상황에 기반을 두고 있다(Waldheim, 2004; 2006; 2010b; Berger, 2006; Weller, 2008; Zoh, 2010; Thompson, 2011; Kunstler, 2013). 이러한 이론적 맥락을 반영하듯 다운스뷰 파크나 프레쉬 킬스와 같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전형을 보여주는 프로젝트들은 북미에서 등장하며, 그 이후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계열의 실천적 사례들 역시 대부분 지리적으로 북미에 위치한다. 그런데 최근의 발전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프로젝트들은 북미에 국한되지 않고, 중남미, 아

시아,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Corner, 2010; Waldheim, 2010a; Smith, 2010; Zoh, 2010; Kang, 2013). 이와 같은 상황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장과 방법론이 북미적인 맥락에서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을 검증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동시에 북미와는 전혀 다른 환경을 지닌 도시에도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이론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통하여 구현되고 있다는 사실은 실천적 측면에서도 발전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들과 실천적 전략의 관계를 살펴보면, 발전적 사례들의 경우 다운스뷰 파크나 프레쉬 킬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개념이 강조되기 보다는 다양한 개념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하나의 전략이 여러 개의 개념들을 동시에 구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로워 던 랜드의 경우 새롭게 복원된 강의 하구는 도시의 우수를 처리하는 기반시설임과 동시에 생태적 환경이 조성되는 공간이며, 부지의 장소성을 고려한 전략이기도 하다. 또한 다양해진 프로젝트의 유형과 규모 때문에 같은 개념을 구현하더라도 전혀 새로운 방식의 전략들이 제시된다. Groundlab은 룡강 마스터 플랜에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이용한 계획 기법은 도시의 수평적 판을 조작하며 연결하는 새로운 전략을 선보이며, 중심행정타운의 도시와 연결된 거대한 건물 옥상은 폴딩 기법의 연장선상에 있으면서도 새로운 공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이전과는 다른 수평성과 생태, 그리고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실천적 매체가 된다. 이전의 프로젝트들과 비교해볼 때, 발전적 사례에서 나타나는 복합적 개념의 구현방식과 새로운 전략들은 한층 발전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양상을 보여준다.

#### IV. 결론

실천을 중심으로 살펴본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난 실천과 이론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다. 이론이 선언되기 이전부터 이미 선구적인 프로젝트들을 통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점과 개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선행적 사례들이 제시한 새로운 사고와 전략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해석하고 포섭하는 과정에서 정립된다. 이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초기 단계에서 실천으로부터 이론적 내용과 틀을 구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담론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며 다양한 논의가 생산되던 1997년과 2006년 사이의 10년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구체적인 실천적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효성 있는 실천적 성과를 내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이 기간 동안 아직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과 틀이 구성되는 과정에 있었으며, 이론에 근거한 실천적 실험이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다.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을 통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내용이 정리되면서 비판적 견해와 추가적인 해석 등 이론적 내용이 다양화 되고, 새로운 유형의 실천적 사례들이 증가하기 시작한다. 2006년 이후의 문헌에서 예시되는 발전적 사례들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의 발전된 형태들을 보여준다. 발전적 사례들을 모두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프로젝트로 보기는 힘들지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기반을 둔 프로젝트들이 대폭 늘어나며, 이론과 실천적 전략과의 연결 관계도 명확해진다. 이는 실천에서 이론적 내용을 구성했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을 통해 가시적인 실천적 효과를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 양상의 특징은 선행적으로 나타난 프로젝트에서 이론적 내용과 개념들을 구성하던 해설적 이론에서 점차 이론적 구조가 갖추어지면서 이론에 근거한 의미 있는 실천적 효과와 결과물들이 나타나는 생산적 이론으로 변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각 특징적 사례들의 내용상의 차이와 담론의 기여 사항은 Table 6에서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의 구도를 실천적 측면의 전개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이론을 중심으로 실천을 바라보던 이전의 관점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론과 실천의 상호성을 고찰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천의 해석에 근거해볼 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이 계획과 설계의 차원에서 차별화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설명이 가능하다. 차별성에 대한 비

판은 주로 디자인적 형태 혹은 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실천적으로 전개되어온 양상을 살펴보면 계획과 설계의 형태적인 결과보다는 오히려 과정 중심의 전략과 접근 방식에서 차별성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비판의 맹점은 실천적 이론으로서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그리고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지적하는 견해에 대한 대응은 다음과 같다. 이론적 원칙과 지침이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실천을 통하여 이론적 틀이 구성되어 지속적으로 이론과 실천이 서로 영향을 받고 있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에서 이론과 실천의 간격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간격은 이론과 실천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수반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간격의 궁극적인 해소가 아니라, 간격을 통해 이론과 실천의 현재 상태를 점검하고, 발전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는 방식에 있다.

이론과 실천의 구도가 고정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특성은 약점으로 지적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 담론이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다양한 논의를 생산하면서 생명력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담론은 특정 시점에 완성되었다기보다는 현재에도 다양한 실천을 통해 계속 진화해가고 있다. 이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틀이 정립되고, 가시적인 실천적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비판과 도전에 부딪히고 있다. 실천적 측면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개 양상과 이론적 구도를 검토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한계와 가능성을 보다 명

Table 6. Comparison of Landscape Urbanism practice based on project types

Types	Period	Major projects	Characteristics	Contribution
Archetypal Projects	Before 1983	Back Bay Fens(1882) The New Regional Pattern(19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Traditional projects that have elements inconsistent with the directions of Landscape Urbanism</li> <li>Insignificant influence to the formation of Landscape Urbanis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trengthen the theoretical connection with contemporary architec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 history</li> </ul>
Precedent Projects	1983~1997	Parc de la Villette (1983) Trinitat Cloverleaf Park(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rojects built or proposed before establishment of Landscape Urbanism</li> <li>European projects showing hybridized approaches in architecture, landscape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li> <li>Concepts and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in projects were not fully interconnecte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uild the identity as descriptive theory for contemporary design movement</li> <li>Provide core ideas and strategies for the practice and theory of Landscape Urbanism</li> </ul>
Exemplary Projects	1997~2006	Downsview Park(2000) Fresh Kills(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orth-American context</li> <li>Limited numbers of projects</li> <li>Concepts and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were interrelated in a single projects</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Contribute to develop a reciprocal interaction between theory and practice</li> <li>Provide new methods and approaches in design practice</li> </ul>
Progressive Projects	2006~Present	Knowledge Corridor (2005~2013) High Line(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ppearance of a new generation of designers supporting Landscape Urbanism</li> <li>Diversity in types and numbers of projects</li> <li>Expanding influence to various regions in the world</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uggest further developed ideas and strategies in design practice</li> <li>Show possibilities to provide alternatives to global urban problems in different contexts</li> </ul>

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주 1. 이론과 함께 실천의 측면을 강조하는 태도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초기 저술에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난다. 월드하임(Charles Waldheim)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이 “조경과 도시 설계의 실무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기술”로서 제안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Waldheim, 2002: 17), 하이트(Christopher Height)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디자인 이론이 아니라 디자인 실무의 차원에서의 혁신에 대한 약속”이라고 규정한다(Height, 2003: 22). 코너(James Corner)는 실천적 이론으로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두 번에 걸쳐 실천적 주제를 제시한 바가 있다(Corner, 2003: 2006). 그리고 최근의 저술에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개념일 뿐만 아니라 실천의 양식”이라고 정의한다(Corner, 2010: 26). 국내에 학술적으로 처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소개한 배경한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조경과 어바니즘상의 전통적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이론적, 실천적 범주”라고 정의 내린다(배정환, 2004: 70).
- 주 2. 2002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개최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컨퍼런스에서 그레이(Gray Hack)은 작은 스케일의 전략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영미의 주거 구조를 벗어난 복잡한 도시 형태에 적용될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Shane, 2006). 또한 셰인(Graham Shane)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도시 형태의 문제나 정주 패턴의 발생에 대한 문제를 아직 다루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바가 있다(Shane, 2006: 70). 그레이(Christopher Gray)는 “기존의 도시나 지역 계획의 접근방식과 차별화하기 위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디자인의 영역을 다루고 있다고 하지만, 이 디자인적 잠재력은 아직 프로젝트를 통해 충분히 나타나지 않았다”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역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Gray: 2006: 94). 마차도(Rodolfo Machado)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생산한 형태는 아직 충분히 성취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Charles, 2009: 235).
- 주 3. 그레이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교의적인 주요 문헌과 프로젝트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나타난다(Gray, 2006: 98)”고 진단하고 있으며, 드레이크(Susannah C. Drake)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이론적으로 주장하는 역동성과 열린 매트릭스는 결과와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설계는 물론 계획으로부터도 멀어진다고 평가한다(Drake, 2010). 쿤스틀러(James H. Kunstler)는 실질적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은 20세기 중반의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결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은 새로운 형태의 이론적 유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Kunstler, 2013).
- 주 4. 웰러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지향점을 검토한 뒤 웨스트 오스레일리아 대학(UWA)의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프로젝트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사례로 제시하였고(Weller, 2007), 이후 다시 한번 이론적 내용을 정리한 후 본인이 참여한 도시수변경관체계 계획안이 어떻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과 연계되는지를 설명하였다(Weller, 2008). 월드하임은 마차도(Rodolfo Machado)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해 JCFO와 West8이 최근에 완성한 프로젝트들을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실천적 사례로 들고 있다(Waldheim, 2009). 코너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최근의 계획 작품인 푸에르토리코(Puerto Rico) 산 후안(San Juan)에 위치한 캠퍼스 계획의 일환인 지식 코리더(Knowledge Corridor)를 새로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사례로 제시한다(Corner, 2010). 또한 리드(Chris Reed)는 자신의 사무실 스토스(Stoss)에서 진행해온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연계되는지를 설명하고자 하였다(Reed, 2010).
- 주 5. 김아연, 고미진, 오형석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다섯 가지 원칙을 분석의 틀로서 사용하여 출현 G5 국제설계경기의 출품작들을 살펴본 바가 있다(Kim *et al.*, 2006). 앞선 연구와 유사한 방식으로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적용하여 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에서 나타난 도시공원의 설계 전략들을 검토하였다(Kang

- et al.*, 2008). 건축분야에서 이영미와 유우상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주제를 통하여 해외건축설계사의 입체 복합시설물에 사용된 설계 전략을 분석하였으며(Lee and Yoo, 2010), 윤희연은 웨스트 첼시(West Chelsea) 개발 과정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대표하는 프로젝트인 하이라인(High Line)의 역할을 분석함으로써 실천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을 검증하려 하였다(Yoon, 2010). 강효정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을 통해 디자인 전략을 도출하였고, 이후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적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가능성을 찾고자 국내외 공모전들을 대상으로 실천적 특성들을 살펴본 바가 있다(Kang, 2011: 2013).
- 주 6. 주요 문헌들 중에서 국내의 연구들이 참조한 [Large Parks]는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Large Parks]의 저자들의 상당수가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에 참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Large Parks]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술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첫째, [Large Parks]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언급은 단 한번 나올 정도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이 사용된 경우를 찾기 힘들다(Czerniak *eds.*, 2010: 240). 대부분의 이 저술에 실린 문헌들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다. 둘째, 코너는 “공원이나 공공 장소, 정원의 형태로 도시에 대한 영향력을 형성하는 방식”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본질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며, 도시의 복합적인 상황과 관련된 영향과 대응들을 다룬다고 밝힌 바가 있다(Corner, 2010: 26). 하지만 [Large Parks]는 도시보다는 공원 자체를 다루기 때문에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지향점과 차이가 있다.
- 주 7.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원칙을 제시한 사례들은 코너 이외에도 톨슨, 웰러, 조세환, 고주석의 연구가 있다(Weller, 2008; Cho, 2010; Thompson, 2012; Ko, 2013). 그러나 이 원칙들은 모두 기존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실천적 흐름을 분석하거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진화 국면을 재해석한 결과라는 점에서 코너의 개념들과는 다르다.
- 주 8.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공식적인 주창자는 월드하임이다. 그러나 월드하임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대한 코너와의 대화에 근거하여 1996년 처음으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개념을 고안했다고 직접적으로 밝힌 바가 있으며,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기원이 경관을 어바니즘의 매체로 보고자 했던 코너의 1990년대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한다(Waldheim, 2002).
- 주 9. 코너는 2003년의 주제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기회주의, 학문간 연계의 경향, 비결정성의 수용을 넘어서 무엇이 실천으로서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한 성격인가? 지금 우리는 다섯 가지 일반적 주제를 구상할 수 있다(Corner, 2003: 59).” 이 대목은 그때까지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에는 분명한 이론적 내용이 존재하기보다는 경향과 주장만이 존재했음을 짐작하게 해주며, 코너의 주제들은 실천과 함께 이론적 내용을 함께 정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2006년에 역시 코너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 혼성적 실천 영역의 정확한 본질은 무엇이며, 여기서 랜드스케이프와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변하였는가(Corner, 2006: 24)?” 그리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한 뒤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실천적 영역의 틀을 구성함에 있어, ‘시간에 따른 과정’, ‘표면의 각색’, ‘작동적 혹은 실험적 방법’, 그리고 ‘상상력’이라는 네 가지 잠재적 주제를 그려볼 수 있다(Corner, 2006: 30).”
- 주 10. 코너는 2003년 프로세스의 형태와 문화 지리학자 하비(David Harvey)의 모더니즘과 뉴어바니즘에 대한 비판을 인용하면서 “새로운 조직적 구조와 도시에 대한 탐색은 형태의 유토피아보다는 과정의 유토피아에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며(Corner, 2003: 61), 2006년 시간에 따른 과정에서 하비의 동일한 문장을 인용하여 “미래의 어바니즘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계획은 형태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현상이 작동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에서 도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Corner, 2006: 32).
- 주 11. 코너는 상상력에서 과거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이 제시한 주제들이

놓친 가치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특히 공공성과 장소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코너는 상상력의 주제에서 공공 장소의 의미를 “집합적 기억과 요구를 수용하는 용기”라고 정의하며, 공공 공간을 “사회적 상상력을 위한 장소”로 간주한다(Corner, 2006: 36). 또한 장소성에 대해서는 “장소를 만듦으로써 발생하는 정치적 변화는 실제적인 행위의 영역 못지않게 재현적, 상징적 영역에 기인한다고 한다.”고 기술하면서 장소의 실체성, 재현성을 상상력이라는 주제와 동일시한다(Corner, 2006: 36). 이 때 장소에 대한 코너의 논의는 처니악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되돌아보기: 대상지에 대한 성찰’에서 부지의 개념을 통해 다루려는 주제와 동일하다(Czerniak, 2006).

- 주 12. 라 빌레트 공모전의 의의에 대해 왈드하임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도시적 프로그램을 경관적 프로세스로서 조울했던 첫 번째 프로젝트는 1982년의 라 빌레트 공원 설계 공모전이었다(Waldheim, 2006: 43).”, “현대 랜스케이프 문화 안에서 위와 같은 경향이 이미 1983년 라 빌레트 공원 설계 경기가 열렸을 당시에도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생각하면 플래닝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이 한 가지 제기된다(Waldheim, 2010b: 124).” 또한 웰러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련 저술들이 전체적 경관을 개념화할 새로운 방법으로서 램 쿨하스와 OMA의 라 빌레트 공원 계획안을 계속해서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해준다. 알렉스 웰이 사회적 도구들의 장이라고 명명한 OMA의 라 빌레트 계획안은 지난 20년 동안 조경 디자인을 논쟁의 중심으로 만들었다(Weller, 2006: 86-87).” 이 때 설계 공모전의 연도가 다른 이유는 공모전이 시작된 해는 1982년이지만, 안이 선정된 해는 1983년이기 때문이다.
- 주 13. 채석장 부지와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으로 바꾼 파리의 부트 샹몽(Parc des Buttes-Chaumont) 공원은 브라운필드 재생 프로젝트로 볼 수 있다. 부트 샹몽 공원은 1865년에 개장하였다.

## 인용문헌

- Belanger, P.(2006) Synthetic surface,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270-299.
- Bong, I.(2005) Dimension of Virtuality. Seoul: Spacetime, 봉일범(2005) 잠재성의 차원. 서울: 시공문화사.
- Bru, E. ed.(2001) Coming from the South, Barcelona: ACTAR.
- Cho, S.(2010) Practical strategies for urban regeneration through an application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2): 109-118.
- 조세환(2010)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 전략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8(2): 109-118.
- Corner, J.(1997) Ecology and landscape as agents of creativity, in Thompson, G. and S. Fredrick eds., Ecological Design and Planning,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81-107.
- Corner, J.(2001) Landscaping, in Daskalakis, G. eds., Stalking Detroit, Barcelona: Actar.
- Corner, J.(2003) Landscape Urbanism, in Mostafavi, M.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58-63.
- Corner, J.(2006) Terra Fluxus,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23-37.
- Corner, J.(2010) Landscape urbanism in the field, in Topos (71): 25-29.
- Czerniak, J. and H. George eds.(2007) Large parks, Pae, J. and Idla (trans.), Large Park, Paju: Jokyoung, 2010.
- Czerniak, J.(2006) Looking back at Landscape Urbanism: Speculations on Site,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120-141.
- Donnelly, B.(2013) Absorbing Landscape Urbanism,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171-185.
- Drake, S.(2010) Term, definition, identity: Regenerating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era of Landscape Urbanism, in Topos (71): 50-55.
- Drexler, H. and C. Duisburg(2003) In conversation with RUR: On material logics in architecture, landscape and urbanism, in Mostafavi, M.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102-110.
- Emily T.(2013) The social apathy of Landscape Urbanism,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105-114.
- Gray, C.(2007) Turning Field: Contradictions in Landscape Urbanism, in Kerb 15: Landscape Urbanism, Melbourne, McLaren Press. 94-100.
- Hight, C.(2003) Portraying the urban landscape: Landscape in Architectural Criticism and Theory, 1960-Present, in Mostafavi, M. and C. Najle eds,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22-33.
- Kang, H. and J. Choi(2011) A study on the main concepts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7(8): 225-232.
- 강효정, 최재필(2011)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 개념에 대한 연구,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7(8): 225-232.
- Kang, H.(2013) A study on Landscape Urbanism based on Korean cases, Journal of Urban Design Institute of Korea 14(4): 29-41.
- 강효정 (2013) 한국적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4(4): 29-41.
- Kang, Y. J., J. Kim and J. Pae(2008) Design strategies for urban parks as urban infrastructure-An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for the Incheon Cheongna District, Korea,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6(5): 42-54.
- 강연주, 김정화, 배정환(2008)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 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6(5): 42-54.
- Kim, A, M, Koh, and H, Oh(2006) Re-reading Chuncheon G5 International Design Competition from a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4(3): 120-138.
- 김아연, 고미진, 오형석(2006)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으로 본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3): 120-138.
- Kim, M.(2009) An analysis of the architectural and urban space through practical issues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Spatial Structure 9(3): 83-92.
- 김민경(2009)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실천적 주제에 의한 건축 도시공간 분석, 한국공간구조학회지 9(3): 83-92.
- Ko, J.(2013) Articulating Landscape Urbansim,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245-262.
- Kunstler, J. H.(2013) The Zombies of Gund Hall Go Forth and Eat America's Brains,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125-140.
- Lee, Y. and W. Yoo(2010) Design strategies of high-rise mixed use complex through a viewpoint of Landscape Urbanism - Focused on projects of Jerde Partnership,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2): 119-128.
- 이영미, 유우상(2010)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을 통해 본 입체 복합시설의 설계 전략: 저드 파트너십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대학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6(2): 119-128.
- Mertins, D.(2003) Landscape urbanism happensin time, in Mostafavi, M. and C. Najle eds,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135-140.
- Morenas, L.(2013) A critique of the high line: Landscape Urbansim and the Global South,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293-304.
- Mossop, E.(2006) Landscape of infrastructure, in Waldheim, C. ed.(2006)

-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186-203.
29. Mostafavi, M. and C. Najle eds.(2003) Landscape Urbanism: A Manual for the Machinic Landscape, London: AA Publications.
  30. Pae, J.(2003) Theoretical terrains and design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2(1): 69-79.  
배정환(2003) Landscape Urbanism의 이론적 지형과 설계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32(1): 69-79.
  31. Pae, J.(2012) Landscape urbanism and Korean landscape architecture,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58): 102-107.  
배정환(2012) 랜즈케이프 어바니즘과 한국 조경. 환경과 조경 (258): 102-107.
  32. Pollak, L.(2006) Constructed ground: Question of scale,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142-159.
  33. Reed, C.(2006) Public works practice,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301-321.
  34. Reed, C.(2010) Landscape Urbanism in practice, in Topos (71): 90-107.
  35. Russel, S. J.(2001) It's the future not a contradiction, Landscape Urbanism, in Architectural Record 2001(8): 66-74.
  36. Shane, G.(2006)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61-77.
  37. Shannon, K.(2006) Place as resistance: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160-185.
  38. Smith, T.(2010) Landscape Urbanism: The academic spectrums and practices,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72): 126-133.
  39. Tatom, J.(2006) Urban highways and the reluctant public realm,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205-223.
  40. Thompson, I. H.(2011) Ten tennets and six questions for Landscape Urbanism, Landscape Research 37(1): 7-26.
  41. Waldheim, C.(2010b) Interview: Charles Waldheim,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72): 160-163.
  42.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Review,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43. Waldheim, C.(2002) Landscape urbanism: A genealogy, in Praxis 4: 10-17.
  44. Waldheim, C.(2006) Landscape as Urbanism, in Waldheim, C. ed. (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38-59.
  45. Waldheim, C.(2007) Precedents for a North American Landscape Urbanism, in Almy, D. ed. Center 14: On Landscape Urbanism, Austin: the Center for American Architecture and Design: 292-303.
  46. Waldheim, C.(2009) The Other '56 in Krieger, A. and Willian S. S. eds., Urban Design,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29-236.
  47. Waldheim, C.(2010a) On landscape, ecology and other modifiers to urbanism, in Topos (71): 20-24.
  48. Weller, R.(2006) An art of instrumentality: Thinking through Landscape Urbanism, in Waldheim, C. ed.(2006) Landscape Urbanism Reader, Kim, Y.(trans.) Landscape Urbanism, Paju: Jokyoung, 2007: 78-99.
  49. Weller, R.(2007) Global theory, local practice, in Miller, Andy ed., Kerb 15: Landscape Urbanism, Melbourne: McLaren Press, 66-71.
  50. Weller, R.(2008) Landscape (Sub)Urbanism in theory and practice, Landscape Journal 27: 2-8.
  51. Yang, P. P.(2013) Landscape ecology and its urbanism, in Duany, A. and E. Talen edsl., Landscape Urbanism and Its Discontents, New Society Publishers: 263-279.
  52. Yoon, H.(2010) Landscape urbanism in special west Chelsea district rezoning and high line open space redevelopment projec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1): 84-97.  
윤희연(2010) 웨스트 첼시 개발과 하이라인의 역할에서 나타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성격. 한국조경학회지 38(1): 84-97.
  53. Zoh, K.(2010) Perspective of Korean Landscape Urbanism: Dilemma and potential, Environment and Landscape Architecture (272): 150-157.  
조경진(2010) 한국적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망: 딜레마와 가능성. 환경과 조경 (272): 150-157.

---

원 고 접 수 일: 2013년 12월 2일  
 심 사 일: 2013년 12월 23일(1차)  
 2014년 1월 13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14년 1월 13일  
 3 인 의 명 심 사 필